

제4권 (3단원 : 주님을 모신 가정)

(제16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 본문 : 출애굽기 20:12

· 요절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 찬송 : 30장(새찬송가 14장), 379장(새찬송가 204장)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인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효도를 행하는 것이 덕의 근본(孝德之本也)’이라는 옛말은 곧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륜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고 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제 부모를 공경하고, 비록 제 부모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부모 공경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여기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올바른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지를 행실로써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공경하라’는 말속에는 ‘계속해서 존귀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는 부모님께 대하여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길러 주신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부모가 낳았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는 자식을 잘먹이고 잘입히지 못하고 많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을 요구하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 때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른 데 대한 보람과 흐뭇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께 대한 존경은 어떤 까다로운 예절을 표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정한 말과 밝은 표정으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행한 다든지, 좋은 것을 먼저 부모님께 드리는 것 역시 부모 존경의 한 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모에게 좋은 옷과 음식을 해드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드릴지라도 거기에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결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5)고 하신 대로, 진심어린 존경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 하였고,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20)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였던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이삭은 노쇠한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가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을 보인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평생 평탄하고 복된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물론이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자식으로서 순복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하신 말씀은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할 점은,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부분도 부모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순종한다면 이는 부모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불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을 들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성숙한 인간으로 양육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은 과연 높고도 깊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그 대신 부모를 봉양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며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마 15:4~9).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 봉양을 태만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장성한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필요한 용돈을 드리며,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켜 드리는 것은 자식된 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자녀들과 함께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에 섬기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달리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엡 6:1~3).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